

영어의 심리동사

장은숙*

I. 서론

Belletti and Rizzi(1988)에 의하면 심리동사는 'fear-유형'과 'frighten-유형'으로 분류된다. 'fear-유형'의 동사에는 'like, admire, hate, regret, respect, miss, forget' 등이 있으며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문법성의 차이를 보인다.

- (1) (a) She loves that color.
(b) *That color loves her.

(1a)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경험자(experiencer)가 주어로 나타나고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자(stimulus)가 목적어로 나타나므로 정문(grammatical sentence)이 되는 반면에 (1b)에서와 같이 자극자가 주어로 나타나고 경험자가 목적어로 나타나게 되면 비정문(ungrammatical sentence)이 된다.

'frighten-유형'의 동사에는 'bother, surprise, please, frighten, worry, interest, amuse, satisfy' 등이 있으며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문법성의 차이를 보인다.

- (2) (a) The doll pleased Peter.
(b) *Peter pleased the doll.

(2a)에서는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자가 주어로 나타나게 되어 정문인 반면에 (2b)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경험자가 주어로 실현되게 되어 비정문이 된다.

최근 심리동사에 대한 연구로는 Postal(1971)의 심리동사의 이동, Pesetsky(1987, 1990)의 결속적 접근, Vanvalin(1993)의 상황적 접근 등이 있다. Postal(1971)은 심리적 상태나 과정 혹은 속성(psychological states, processes, or attributes)을 표현하는 술어(predicate)를 포함하는 문장에 적용되는 어휘적으로 제한된 규칙으로 심리술어 이동을 제안한다. 심리동사의 이동은 다음과 같은 문장의 짝에서 관찰되는 의미론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영어과 시간강사

- (3) (a) I tasted the meat.
 (b) The meat tastes funny to me.

(3a)에서는 'I'가 가진 'taste'의 논리주어로서의 의미가 (3b)에서는 'to me'가 가진 의미와 동일하다. Postal(1971)은 'to me'가 (3b)에서 가진 의미역할(semantic role)은 다음의 예문과 같은 심층구조(deep structure)에서 'I'가 이동에 의해서 문장 끝으로 이동하여 'to me'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4) I tasted the soup funny.

(3b)에서 'to me'는 심층구조에서 'taste'의 논리주어이기 때문에 (3b)의 'to me'가 주어자리에 있지 않지만 의미론적으로 'taste'의 논리주어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¹⁾.

그러나, Chomsky(1986a,b)는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의 테두리 안에서는 Postal(1971)이 제안한 것과 같은 이동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Pesetsky(1987)와 Belletti and Rizzi(1988) 등은 심리동사의 통사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이한 결속효과(peculiar binding 혹은 funny binding)'를 발견한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살펴보자.

- (5) (a) Pictures of each other annoy the politicians.
 (b) Stories about herself generally please Mary.

1) Postal(1971)에 의하면 이러한 심리동사의 이동을 유발하는 술어는 형태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동사 뒤에 형용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look, feel, smell, sound' 등이 이에 속한다(예문에 제시되는 (a)의 문장은 (b)의 문장과 짝을 이루며 (b)의 문장은 이동에 의해서 얻어진다).

- (1) (a) I tasted the soup.
 (b) The soup tasted funny to me.

둘째, 'V-ing'형태를 이루며 V의 논리주어가 'to'를 택하는 경우, 짝을 이루는 문장은 'V_ed'형태의 술어를 가지며 목적어는 전치사와 함께 온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annoying, boring, confusing, disgusting, exciting, frightening, puzzling' 등이 있다.

- (2) (a) I am amused {with/at/by} Harry.
 (b) Harry is amusing to me.

셋째, 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짝을 이루는 문장은 동사가 술어를 이룬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acceptable, preferable, agreeable' 등이 있다.

- (3) (a) I loathe Schwartz.
 (b) Schwartz is loathsome to me.

- (c) Each other's health worried the students.
- (d) Each other's books amazed the man.

이 특이한 결속효과는 술부가 심리동사에 속한다하더라도 행위자-피동자의 의미역을 부여할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Pesetsky, 1987). 따라서, 심리동사의 이동은 심리동사가 행위자-피동자의 의미역을 택하지 않고 소위 경험자의 의미역을 택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속조건에 의하면 (5a)의 'the politicians'가 대용사 'each other'를 결속하기 위해 전자가 후자를 성분통어(c-command)²⁾해야 하는데 (5a)에서는 전자가 후자를 성분통어하는 구조를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특이한 결속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Pesetsky는 (5a)의 구조가 아래의 예문과 같은 목적어인상변형(*Tough-movement*) 구조에서 도출된다고 제안함으로써 심리동사의 이동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6) [pictures of each other_i]_j annoy the politicians_i [PRO_i to look at [e]_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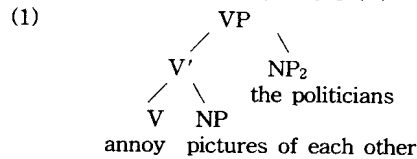
이에 반하여 Belletti and Rizzi(1988)는 이탈리아어 심리동사이동효과를 보이는 구문을 연구하여 심리동사의 이동 효과를 나타내는 술어는 능격동사(ergative verb)로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며 수동문에서 보는 α -이동을 갖는다고 제안했다³⁾. 그러나, 심리동사에서 나타나는 극히 부분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

2) Reinhart(1976)에 의하여 제안된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α c-commands β iff (1) α does not dominate β and (2) the first branching node that dominates α dominates β .

α 가 β 를 성분통어하려면 α 가 β 를 관할하지 않아야 하고, α 를 관할하는 첫 분지점이 β 도 관할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수형 구조를 통해 설명하여 보자.



(1)에서 'pictures of each other'가 지정어 자리(SPEC)로 α -이동된다. 이러한 특이한 결속현상을 다음과 같은 결속조건 (A)에 적용되는 수소원리(anywhere principle)를 제안하여 설명한다.

(2) Binding condition (A) may be met somewhere, either D-structure or S-structure.

이 원리에 따르면 위의 수형구조에서 'the politicians'가 'each other'의 선행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자가 후자를 S-구조에서 성분통어하지 못하지만 D-구조에서는 성분통어하기 때문이다.

운 결속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경제성원리(economy principle)에 위배되고 심리적 실재(psychological reality)의 관점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Vanvalin(1993), 장은숙(1998) 등의 상황적 접근은 상황상과 의미역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의미함수 즉 CAUSE함수, BECOME함수, DO함수, CHANGE함수 등을 설정하여 심리동사의 통사적 및 의미적 현상을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⁴⁾. 그러나, 심리동사가 갖는 의미자질들을 이용하여 심리동사 구문의 문법성을 고찰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담화에 나타나는 심리동사의 정보 기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황상과 의미역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질점검(feature checking)을 통한 심리동사의 문법성을 설명하고, 담화(discourse)에 나타나는 심리동사의 정보 기능을 살펴봄, 아울러 심리구문에서의 한국어와 영어간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심리동사의 자질점검

심리동사에 나타나는 의미자질과 의미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리동사와 상황상(lexical aspect)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 상황상

상(aspect)에는 관점상(viewpoint aspect)과 상황상(lexical aspect)이 있다. 관점상은 어떤 상황의 내적시간구성을 투시하는 범주(viewing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of a situation)로 대표적인 것은 진행형이 있다. 다시 말해서, 관점상은 동사의 활용어미나 'be -ing'와 같은 문법적 표지로서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상이다.

상황상은 어휘적 의미로 표시되며 객관적이며 동사가 본유적으로 갖는 본질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상태동사(state), 활동동사(activity), 성취동사(achievement), 완수동사(accomplishment)로 세분된다. 상태동사는 (7)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형으로 사용되지 않는 동사이며, 성취동사는 변화가 있지만 시간적 폭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8)과 같은 동사들이 있다.

(7) States

A. Intransitive Adjectives : be tall, big, green, false, likely...

4) 구체적인 논의는 장은숙(1998) 참조

- B. Intransitive Verbs: exist, stink, itch, burn, live, be believed....
- C. Transitive and Two-place phrasal adjectives: like, similar, identical, proud, jealous, fond of NP...
- D. Transitive verbs
 - 1. Animate subjects: love, hate, dislike, know, have.
 - 2. Symmetric predicates: resemble, equal, be.
 - 3. Propositional subject: involve, concern.
 - 4. Physical perception verbs: see, hear, smell, taste, feel, perceive.
 - 5. Cognitive verbs: understand, know, believe, doubt, regret.
 - 6. "Psych-Movement" verbs: dismay, worry, please, surprise, astonish.
 - 7. Non-extensional Objects: need, want, desire, fear.
- E. Two-place phrasal Verbs
 - 1. Locatives : be in, on, around, under, at NP, be located, be found at, sit, start, rest, hang, lie, perch, adhere to.....
 - 2. "Psych-Movement" : be pleased, astonished, dismayed at NP.....

(8) Achievements

- A. Locatives: reach, leave, touch NP, arrive at, land on, depart from
- B. Change of Physical State: melt, freeze, die, be born, molt, ignite, collapse, become ADJ.....
- C. Change of Physical State: darken, warm, cool, sink, improve, ...
- D. "Aspectual" Complement Verbs: begin, start, cease, resume, end...
- E. Possessive: acquire, receive, get, lose.

활동동사는 변화가 있고 사건의 시간적 폭을 가진 동사들 'run, draw, walk, play...' 등의 많은 동사가 여기에 속한다. 완수동사는 활동동사와 같지만 단지 종결점(end point)이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보자.

- | | |
|-----------------------------------|------------------|
| (9) (a) Peter walked. | (activity) |
| (b) Peter walked to the station. | (accomplishment) |
| (c) Peter arrived at the station. | (achievement) |

위의 예문에서 Peter가 걷는 행위는 변화가 있고 걷는 행위가 전개되는 시간적 폭이 있으므로 (9a)는 활동동사가 되고, (9b)는 역까지 걸어갔으므로 역은 걸어진 행위의 종결점이 있는 것이므로 완수동사가 되며, (9c)는 Peter가 역에 도착한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시간적 폭이 없는 성취동사가 된다.

2.2. 상황상의 의미역과 자질점검

Grimshaw(1990)는 심리동사를 설명하기 위해 의미역 층위(thematic tier)에 상

적 층위(aspectual tier)를 첨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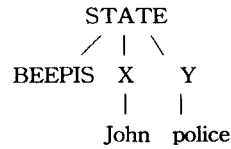
(10)	Frighten type		
	Experiencer	Theme	(Thematic Tier)
	1	2	
	CAUSE	STATE	(Aspectual Tier)
	2	1	
(11)	Fear type		
	Experiencer	Theme	(Thematic Tier)
	1	2	
	STATE	STATE	(Aspectual Tier)
	1	2	

‘frighten-유형’의 동사는 의미역 층위에 있는 경험자역과 피동자역(theme)이 상적 층위에서 경험자역은 목적어의 자리로 피동자역은 주어 자리로 이동이 되며 이럴 경우에 피동자역은 CAUSE를 갖게 되고 경험자역은 STATE를 갖게 된다. 반면에 ‘Fear-유형’의 동사는 의미역층위의 경험자역과 피동자역이 상적 층위에서 둘 다 STATE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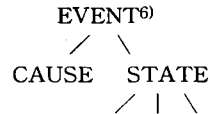
이러한 Grimshaw(1990)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동사와 상황상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계층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 (12) (a) John fears the police.
(b) The police frightens John.

(13) Fear type 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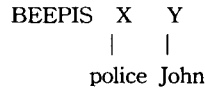


(14) Frighten type



5) 이 수형구조는 함수와 논항 간의 결합되는 방식을 바탕으로 범주들간의 관계를 구조화한 상황 구조로서 구조의 체계적 설명과 구체적인 논의는 장은숙(1995), 장은숙(1998) 참조.

6) Bach(1996)는 상태, 활동, 성취, 완수동사 등의 상황상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건성(EVENTUALITY)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태인 활동, 성취, 완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건을 사용하는 Vendler(1967)의 개념을 취한다.



위의 수형 구조에서와 같이 'frighten-유형'은 'fear-유형'과 달리 CAUSE자질을 갖는 EVENT 층위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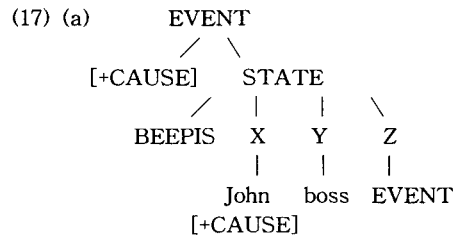
CAUSE자질을 갖게 되면 그 자질은 인과성(causation), 종결성(telicity), 통제성(control)⁷⁾을 포함한다. 인과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을 일으키는 유발자가 되는 개체가 있고, 그 개체에 의해 유발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도둑은 유발자가 되며 그 도둑에 의해 사건이 야기되므로 인과성을 갖는 문장이 된다.

(15) The thief frightened the student.

학생이 두려움을 느낀 사건이 도둑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도둑과사건 간에는 인과성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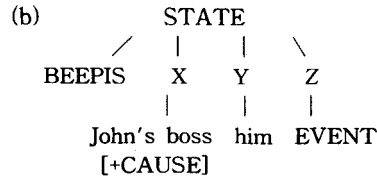
이러한 심리동사가 갖는 인과성을 바탕으로 자질점검(feature checking)을 통해 심리동사의 문법성을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질점검은 최소이론(minimality program)⁸⁾에서 이동의 경제성과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CAUSE성을 갖는 심리동사의 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

- (16) (a) John pleased his boss by coming in early every day.
- (b) *John's boss liked him by coming in early every day.
- (c) *John was pleased by his boss by coming in early every day.



7) 통제성과 종결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장은숙(1996), 장은숙 & 윤용진(1997), 장은숙(199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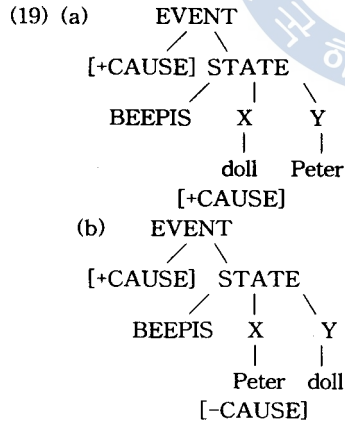
8) Chomsky(1993)는 생득적이며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언어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법이론을 최소화하여 그 경제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설명력을 극대화하고 문법이론의 축소를 통해 문법의 기술적 타당성(descriptive adequacy) 뿐만 아니라 설명적 타당성(explanatory adequacy)을 더 높이는 것으로 최소이론을 제안하였다.



(17a)에서는 주어 John이 CAUSE를 갖고 상위의 EVENT 층위에서도 CAUSE를 가지며 PP에서도 비상태성인 EVENT를 가지므로 자질간 일치가 일어나 문장 (17a)가 정문이 되지만 (17b)에서는 John's boss가 CAUSE를 갖고 PP도 비상태성인 EVENT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구조에서는 CAUSE를 갖지 않는 STATE이기 때문에 자질간 일치가 되지 않아 비정문이 된다.

유사하게 서론에서 제시한 예문을 다시 쓴 아래 문장의 문법성을 자질점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8a)에서는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자가 주어로 나타나게 되어 정문인 반면에 (18b)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경험자가 주어로 실현되게 되어 비정문이 된다는 것을 자질점점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 (18) (a) The doll pleased Peter.
 (b) *Peter pleased the doll.



(19a)에서는 주어 'doll'이 CAUSE자질을 갖고 상위의 EVENT 층위에서도 CAUSE자질을 가지므로 자질간 일치가 되어 정문이 되지만 (19b)에서는 Peter가 CAUSE자질을 갖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구조에서는 CAUSE자질을 갖게 되어 자질간 일치가 되지 않아 자질점점을 통해 비정문이 된다.

요약하면, 'fear-유형'의 동사는 상황상 중 상태동사로 주어자리에 경험자역을

할당하고 목적어자리에 자극자역을 할당하는 반면에 'frighten-유형'의 동사는 주어자리에 자극자역을 할당하고 목적어 자리에 경험자역을 할당한다. 따라서, 'frighten-유형'에서는 주어가 CAUSE자질을 가지므로 상위에 있는 EVENT층위에서의 CAUSE자질과 일치하는 지에 대한 자질점검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fear-유형'에서는 주어가 CAUSE자질을 갖지 못하므로 CAUSE성이 없는 상위의 STATE와 자질을 점검하여 문장의 문법성을 점검하게 된다.

Ⅲ. 심리동사의 자질과 전경(foreground)

전경은 담화(discourse)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의 설명에서 중심적 요소인 반면에 배경(background)은 전경보다 덜 중요한 사건으로서 2차적 요소로 구성된 부수적 과정이다. Fleischman(1985:852)에 따르면 담화는 전경과 배경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전경과 배경의 구분이 담화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 Givon(1984)은 과거시제가 전경에 속하는 반면에, 완료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는 배경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한편, Partee(1984)는 주절이 전경에 속할 수 있는 반면에 종속절은 배경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관점상 중 완료상을 전경(Hopper1979)으로 분류하고, 어휘상 중 종결성(telicity)을 갖는 성취동사나 완수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전경(Partee 1984, Hinrichs 1986)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단선적 구분과 달리 연속적 구분으로 전경과 배경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Longacre(1989)는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담화는 시제, 어휘상, 상황상, 부사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의 현저성(salience)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층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다.

그러나, Longacre(1989)의 주장은 동일한 시제가 어떤 경우는 전경이 되고 어떤 경우는 배경이 되는 일관성 없는 구분을 하고 있고 전경과 배경의 구분에서 매우 중요한 주절(main clause)과 종속절(subordinate clause)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경층위(foreground rank scheme)를 설정한다.

- (20) 전경층위(foreground rank scheme)
 - (a) 사건강진전(event strong progression)
 - (b) 사건약진전(event weak progression)
 - (c) 사건비진전(event non-progression)
 - (d) 사건종속(event subordination)

사건강진전이 되려면 주절이면서 상황상 중 성취동사 또는 완수동사이거나 부사 등에 의해 진전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을 살펴보자. 여기서, 'then'은 어떠한 상황상을 고려할 필요 없이 첫째 사건과 둘째 사건 간의 시간관계를 선후해석이 되도록 한다.

- (21) (a) John went to the bank. He stopped by the doughnut shop.
 (b) John went to the bank. Then he stopped by the doughnut shop

(21a)에서는 John이 간 사건과 가게에 들른 사건간의 시간관계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John이 은행에 가는 도중에 가게에 들렀다는 해석이 된다면 둘째 사건이 첫째 사건의 시간 폭에 포함되는 포함해석이 될 수도 있고, John이 은행에 간 후에 가게에 들렀다는 사건진전해석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21b)와 같이 명시적 시간부사 'then'이 첨가된다면 둘째 사건이 첫째 사건 이후에 일어났다는 사건진전해석이 된다.

사건약진전은 성취동사나 완수동사로 사건을 진전시키지만 단지 종속절에 있는 사건일 경우(Peter saw the man, when he ran away at once)이며, 사건비진전은 상황상이 상태나 활동인 경우로 어떤 언어적 지식(linguistic knowledge)이나 세계에 대한 지식(world knowledge)⁹⁾에 의해서도 사건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층위이며, 끝으로 사건 종속은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여러 사건들이 한 사건에 종속되는 경우이다.

- (22) (a) Peter's relatives had three accidents last year.
 (b) Max rolled over the edge of the cliff.
 (c) Mary caused the traffic accident.
 (d) John broke his leg while playing soccer.

(22a)의 사건 밑에 세 개의 사건이 종속되어 (22b), (22c), (22d)는 모두 완수동사임에도 사건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사건종속층위에 속하게 되어 배경정보가 된다.

이제 심리동사와 전경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심리동사 중 'fear-유형'은 상태성을 가지므로 사건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사건비진전층위에 속하지만 'frighten-유형'은 완수에 속하므로 사건을 진전시키는 사건진전층위에 속한다. 예를 들어, *The Old Man and the Sea*에 제시된 심리동사를 살펴보자.

9) Lascarides(1992)와 Lascarides & Oberlander(1993)는 문장간의 관계를 언어적 지식(linguistic knowledge)과 세계에 대한 지식(world knowledge)으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장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제, 상, 명시적 시간부사, 문맥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23) He could feel the steady hard pull of the line and his left hand was cramped. It drew up tight on the heavy cord and he looked at it in disgust. We were born lucky, he thought. *He feared the great fish that had nothing to eat and his determination to kill*

여기서 심리동사 중 fear-유형인 'fear'는 사건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사건비진전 층위에 속하게 되어 배경정보가 된다.

심리동사 중 frighten-유형의 동사는 fear-유형과 달리 사건을 진전시킨다.

- (24) Mary went to the store. She fixed a faucet. She wrote a long overdue thank-you letter to her nephew. She read the morning paper. *The paper frightened her.*

일련의 사건들에 나타나는 상황상은 모두 주절이면서 상황상이 완수이므로 모두 사건강진전층위에 속하게 되어 전경정보가 된다. 물론 마지막 사건에 나타난 심리동사는 frighten-유형의 동사이므로 사건강진전층위에 속하게 되어 전경정보가 된다.

유사하게 완수나 성취인 사건이지만 더 상위의 사건에 종속될 때 종속된 사건들 간의 시간관계가 'then'에 의해 진전이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

- (25) John bought a birthday present for his sister yesterday. First, he got up and hurried out to the mall in his car. Then he drove downtown. Finally, he located a country jewelry store. He bought the present, a jade necklace, shortly after noon. He hurried home and gave it to his sister. *The gift surprised her.* Then John hurried out to get an anniversary present for the parents. (Spejewsky & Carlson 1993)

(25)에서는 John이 여동생에게 생일선물을 주기 위해 선물을 사는 사건과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서두르는 두 개의 사건이 상위의 사건이다. 첫째의 상위 사건 내에 있는 then은 하위사건 간의 시간관계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둘째의 상위사건에 첨가된 then은 상위사건간 시간관계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John이 준비한 선물은 여동생을 놀라게 한 사건으로 'the gift'는 CAUSE자질을 갖는 자극자역을 가지고 'her'는 경험자역을 갖게 되어 전경정보를 이룬다.

요약하면, Longacre(1989)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안한 전경 층위 중 사건강진전과 사건약진전은 전경정보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고, 아울러 심리동사 중 'frighten-

유형'의 동사는 전경정보를 이루는 반면에 'fear-유형'의 동사는 배경정보를 이루는 것을 살펴보았다.

IV. 영어와 한국어의 심리동사

영어에서는 심리동사가 두 개의 논항(argument)을 취하는 타동사 구문에 나타나며 논항과 의미역 간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6) (a) frighten type
 frighten'(X, Y)
 | |
 stimulus experiencer
- (b) fear type
 fear'(X, Y)
 | |
 experiencer stimulus

(26a)와 (26b)의 유형 모두 두 개의 논항을 반드시 취해야 하지만 의미역은 유형에 따라서 (26a)는 X가 자극자역을 (26b)는 경험자역을 갖게 된다. 만약 심리동사가 두 개의 논항을 취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비문이 된다.

- (27) (a) The tiger surprised the woman.
 (b) *The woman surprised at the tiger.
- (28) (a) The fact pleased my father.
 (b) *My father surprised with the fact.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심리동사가 두 개의 논항을 취할 수 있고, 아울러 한 개의 논항을 취하여 문장에 실현될 수도 있다.

- (29) (a) 그 사람은 호랑이에 놀랐다.
 (b) *The man surprised at the tiger.
- (30) (a) 그 사람은 그 사실에 기뻐다.
 (b) *The man pleased at the fact.

한국어에서는 심리동사가 자동사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의 형태로 문장에 실현된다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영어에서 심리동사가 타동사구문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수동구문 역시 타동사 구문이 수동화 변형(passive transformation)에 의해 어순이 변화되어 문장

에 실현된다.

- (31) (a) The news surprised the boy.
 (b) The boy was surprised by the news.

또한 양태부사가 문장에 실현될 때에도 한국어와 영어간에 문법성의 차이를 보인다.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양태부사 'carefully'와 함께 사용되면 비문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용인 가능성(acceptability)이 다소 떨어질 뿐이다.

- (32) (a) ?민수는 주의를 기울여 개를 놀라게 했다.
 (b) *Minsu carefully frightened the dog.

한국어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개를 놀라게 한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주는 문맥이 첨가되어야 정문이 되는 상황이므로 용인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 문장이 되지만 'frighten'의 의미는 민수의 행동이 조심스럽게 또는 천천히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태부사가 심리동사와 같이 쓰이게 되면 비문이 된다.

아울러, 역행 조용소(backward anaphora)에서도 한국어와 영어간 문법성의 차이를 보인다.

- (33) (a) ?? 자신₁의 사진들이 영미₁를 괴롭히지 않는다.
 (b) Pictures of himself₁ don't bother Minsu₁.

영어에서 'bother'는 심리동사로 D-구조에서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논항이 주어 자리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역행 조용소 구문인 (33b)는 정문이 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용인 가능성이 떨어진 문장이 된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영어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심리동사는 불완전한 CAUSE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생과정에서 생략되거나 대용어 및 상호 대명사의 해석에 있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에서와 같이 'deliberately'와 같은 부사의 첨가로 상적 속성이 이동하여 불완전한 CAUSE자질이 완전한 자질로 이동하여 주어 자리의 논항은 자극자역이 아닌 행위자역(agent)을 지닌 논항이 되고 목적어 자리의 논항은 경험자역이라기 보다는 피동자역(patient)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 (34) (a) Minsu deliberately amuses Peter.
 (b) 민수는 의도적으로 Peter를 기쁘게 해 준다.

여기서 민수는 의도적으로 Peter를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민수는 행위자역을 가진다.

요약하면, 영어에서는 심리동사가 타동사 구문으로 실현되므로 수동태 역시 타동사 구문의 수동 변형이 되어야 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 구문에 모두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어는 통사적인 제약을 받는 반면에 한국어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도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황상과 의미역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질점검(feature checking)을 통한 심리동사의 문법성을 설명하였고, 담화(discourse)에 나타나는 심리동사의 정보 기능을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심리구문에서의 한국어와 영어간 차이를 고찰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ear-유형'의 동사는 상황상 중 상태동사로 주어자리에 경험자역을 할당하고 목적어자리에 자극자역을 할당하는 반면에 'frighten-유형'의 동사는 주어자리에 자극자역을 할당하고 목적어 자리에 경험자역을 할당한다. 따라서, 'frighten-유형'에서는 주어가 CAUSE자질을 가지므로 상위에 있는 EVENT층위에서의 CAUSE자질과 일치하는 지에 대한 자질점검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fear-유형'에서는 주어가 CAUSE자질을 갖지 못하므로 CAUSE자질이 없는 상위의 STATE와 자질을 점검하여 문장의 문법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Longacre(1989)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안한 전경 층위 중 사건강진전과 사건의약진전은 전경정보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아울러 심리동사 중 'frighten-유형'의 동사는 전경정보를 이루는 반면에 'fear-유형'의 동사는 배경정보를 이룬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영어에서는 심리동사가 타동사 구문으로 실현되므로 수동태 역시 타동사 구문의 수동 변형이 되어야 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 구문에 모두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어는 통사적인 제약을 받는 반면에 한국어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도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경정보의 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의 검증을 통한 심리동사의 특성을 제시하지 못했고, 아울러 영어와 한국어간의 특성의 차이에 있어서도 다양한 통사적 의미적 구문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에 대한 분석의 시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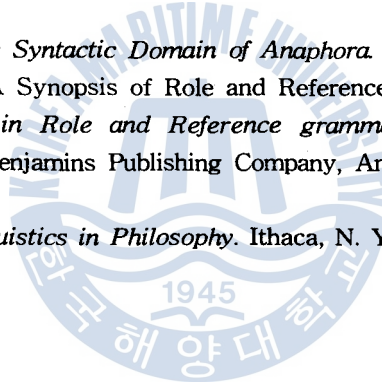
10) 영어의 심리동사 구문은 의미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황종배(2000)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frighten-유형'의 경우 주어의 의미역이 CAUSE성을 갖는 자극자역이 되어야 정문이 되는 반면에 'fear-유형'에서는 주어의 의미역이 경험자역이 되어야 정문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연구과제로 삼겠다.

참고문헌

- 장은숙(1995). "의미역 구조와 사상함수". *효원영어영문학 제13호*. 187-212.
- _____ (1996). "상황상과 의미역할". *효원영어영문학 제14호*. 215-233.
- _____ & 윤용진(1997). "영어 사역화 동사의 의미자질". *영미어문학 제36집*. 165-187.
- _____ (1998). 영어의 상황상과 의미역 체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식 외(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 황종배(2000). "Competition Model and Korean Learners' Acquisition of English Psych Verbs", *영어교육 55권 2호*. 37-57.
- Bach, E. 1986. "The Algebra of Events," *LP 9*. 49-63.
- Belletti, A. and L. Rizzi(1988). "Psych-Verbs and Theta-Theor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6*. 291-352.
- Chomsky, N.(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s and Use*. New York: Praeger.
- _____ (1986b). *Barriers*.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 (1993). The Minimalist Program. ms.
- Dowty, D.(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Reidel, Dordrecht.
- Fleishman, H.(1985). *Narrativity: its Discourse and Texture*. Oxford: Basil Blackwell.
- Givon, T. (1984). *English Grammar*. Amsterdam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inrichs, E. (1986) "Temporal Anaphora in Discourse of English," *LP 9*. 120-145.
- Lascarides, A.(1992). "Knowledge, Causality, and Temporal Representation," *Linguistics 30*. 236-297.
- Lascarides,A.(1993). "Discourse Relations and Commonsense Entailment," *LP 16*. 37-75.
- _____ and N. Asher(1991). "Discourse Relations and Defeasible Knowledge":In *Proceedings of the 29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Berkeley.
- _____ and J. Oberlander(1993). "Temporal Coherence and Defeasible

- Knowledge," *Theoretical Linguistics Vol. 19. No 1.* 45-77.
- Longacre, R.E. (1989) "Two Hypotheses Regarding Text Generation and Analysis," *Discourse Process 12.* 413-460.
- Partee, B. H.(1984). "Nominal and Temporal Anaphora," *Linguistic Philosophy 7.* 131-176.
- Pesetsky, D.(1987). "Binding Problems with Experiencer Verb", *Linguistic Inquiry 8.* 126-140.
- _____ (1990). "Experiencer Predicates and Universal Alignment Principles", ms.
- Postal, P. M.(1971). *Cross-Over Phenomena.*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 Reinhart, T.(1976). *The Syntactic Domain of Anaphora.* Diss., MIT.
- Vanvalin, D.(1993). "A Synopsis of Role and Reference Grammar", *Advanced in Role and Reference grammar.* ed. by Robert D. Vanvali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Philadelphia, 1-164.
- Vendler, Z.(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 Y.: Cornell Univ. Press.



■ Abstract

On English Psych Verbs

Jang, Eun 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relationships between lexical aspect and thematic roles, to explain the grammaticality of psych verbs through feature checking theory, to distinguish between foreground and background of psych verbs in discourse, and to characterize psych verbs in English and Korean.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feature checking system of psych verbs and foreground rank scheme are proposed in this paper. That is, it is proved that the grammaticality of fear-type psych verbs and frighten-type psych verbs is checked through the feature of CAUSE and the system of lexical aspect. Furthermore, it is shown that the foreground rank scheme such as event strong progression, event weak progression, event non-progression, and event subordination analyses the foreground and background of psych verbs in discourse.

